

문화



광주비엔날레를 통해 만난 지역 젊은 작가 8명이 결성한 '비엔나씨제지클럽'은 '반하다'전에서 상상력을 발휘, 예술의 거리에 방치된 빈 집을 그럴듯한 전시장으로 꾸몄다. /내망주기자 mjna@kwangju.co.kr



광주비엔날레 '라운드 테이블'을 패러디한 이조흠씨의 '스퀘어 테이블'전 포스터. (이조흠씨 제공)

젊은 작가들, 솔직을 넘어 발칙하다

이조흠 '라운드 테이블' 패러디 '스퀘어 테이블'전 등 눈길

대인시장·예술의 거리서 전시... 문광부차관 작가와 만남

젊은 작가들의 발칙·발랄함이 기발하다. 답답한 전시장, 사각 틀 역사 속에 다 표현할 수 없는 상상력을 풀어내며 관람객들을 끌어들이고 있다. 관람객들 입장에서는 익숙한 길을 마다하고 새로운 길을 찾았다가 무언가를 발견했을 때의 기쁨이 남다를 수 밖에 없다.

대인시장 내 대안예술공간인 '미테우그로'의 한 스튜디오를 전시장으로 꾸민 이조흠(28)씨의 '스퀘어 테이블'전은 젊은 작가의 재기발랄한 상상력이 돋보인다.

전시장 앞에 설치한 '스퀘어 테이블'(Square Table)이라는 제목의 포스터는 언뜻 보면 제 9회 광주비엔날레 '라운드테이블'(Round Table)을 떠올릴 정도로 꼭 빼닮았다.

전시 기간도 8일부터 11월 11일까지로, 7일부터 11월11일까지인 비엔

날레와 비슷하고 포스터 색깔, 디자인도 흡사하다. 이씨는 "세계 미술계에서 위상을 확고하게 수립해가는 광주비엔날레에 참여해보고 싶은 젊은 예술가들의 욕망을 비틀어 표현했다"면서 "메이저를 향해 외치는 '마이너의 존재감 표현'쯤으로 해석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씨가 자신의 이름 '조흠'에서 판 '우그로'의 한 스튜디오를 전시장으로 꾸민 이조흠(28)씨의 '스퀘어 테이블'전은 젊은 작가의 재기발랄한 상상력이 돋보인다.

전시장 앞에 설치한 '스퀘어 테이블'(Square Table)이라는 제목의 포스터는 언뜻 보면 제 9회 광주비엔날레 '라운드테이블'(Round Table)을 떠올릴 정도로 꼭 빼닮았다.

이씨는 지난 8일 시도한 첫 퍼포먼

스의 두번째 퍼포먼스를 비엔날레 전시관에서 진행할 '음모'를 꾸미는 중이다. 6명의 작가·소주제를 연상시키는 데서 6명에게 각각 헤드폰을 씌우고 춤을 추게 하면서 자신은 그것을 바라보는 관객으로 분하는 퍼포먼스다.

관람객들이 잠시 쉬는 공간, 전시에 방해되지 않는 장소를 찾아 펼친다는 계획이다.

최미경·조은정·이민정씨가 미테우그로 스튜디오 3층에 벌여놓은 '일상 속 깨알상상'전도 젊은 작가들의 생기 발랄함이 엿보인다.

외국 작가 윌리엄 앤더슨이 미테우그로 도서관을 전시장으로 쓰면서 풀어놓은 아시아 지역을 둘러본 에세이와 그림, 드로잉, 스케치전도 눈길을 끈다. 미테우그로의 10개가 넘는 스튜디오는 젊은 작가들로 가득하다. '미테우그로'를 중심으로 작가들의 레지던스 프로그램들이 운영되고 특 특 튀는 전시가 진행되면서 '문화지대'로 변한 시장을 주목하는 눈길도 많아지고 있다.

20일에는 김용환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이 대인시장을 찾아 윤남웅·김탁현·주대희·조승기씨 등과 추어탕을 함께 먹으면서 시장의 변화를 들여보고 21일에는 강운태 광주시장도 둘러본다. 비엔날레도 본 전시관으로 대인시장을 활용하고 있다.

광주비엔날레를 통해 만난 젊은 작가들이 여는 '반하다'전도 젊은 작가들의 재치가 번득인다. 예술의 거리에 오랫동안 방치됐던 낡은 빈 집을 찾아낸 8명의 젊은 작가들이 이 공간을 실험실 삼아 기존 전시장 개념으로는 소화할 수 없는 다양한 작업들을 주제에 맞춰 풀어내고 있다.

박세희씨는 남아있던 장롱과 이불을 그대로 활용해 삶의 기억들을 돌아보거나 새로운 꿈을 꾸는 공간으로 만드는가 하면, 조현택씨는 전시 공간에 컴퓨터를 설치하고 작가의 작품을 온라인 쇼핑몰에서 5000원의 '폭탄세일'가로 살 수 있도록 하는 반란도 시도했다. 김사라씨는 빈 집 한 칸을 실제 다방으로 꾸미고 소풍까지 배치하면서 향수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김지은기자 dok2000@kwangju.co.kr

금노상 지휘자, 광주 시민에 낭만 멜로디 선사

21일 광주시향과 차이코프스키 '비창' 공연

현재 대전시립교향악단을 이끌고 있는 지휘자 금노상(사진)씨는 광주 시립교향악단과 인연이 깊다. 서른 여섯 젊은 나이로, 지난 1989년~1994년까지 5년간 광주시향을 이끌었던 그는 지난 2006년부터 2년간 50대의 나이에 다시 광주시향과 호흡을 맞췄었다. 또 광주문예회관 개관 당시 개관연주회를 갖기도 했다.

르트의 '피가로의 결혼' 서곡이다. 이어 광주에서는 좀처럼 보기 어려운 피아노 삼중협주곡 협연 무대가 마련된다. 피아니스트 윤대우(목원대 교수), 바이올리니스트 김선희(충남대 교수), 첼리스트 한혜선(목원대 교수)씨가 협연자로 나서 베토벤의 '삼중협주곡 작품 56'을 들려준다. 세 개의 독주 악기가 번갈아가며 주고받는 낭만적 멜로디가 인상적인 곡이다.

피아레곡은 우수에 젖은 가을과 앙상맞춤인 차이코프스키의 교향곡 6번 '비창'이다. 차이코프스키가 마지막으로 작곡한 교향곡인 '비창'은 연주회의 서막을 여는 곡은 모차



악하는 작품으로 클래식 애호가들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곡이다. 티켓 가격 3만원~1만원. 학생 50% 할인. 문의 062-524-5086.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한국청소년영상제' 21~23일 동구문화센터

본선 진출작 20여편 상영... 청소년심사단 35명 참여

1318 이젠 너희들이 보여줄 차례

제14회 한국청소년영상제(KYFF·Korea Youth Film Festival)가 오는 21~23일까지 광주 동구문화센터 등에서 열린다.

(사)백지청소년사회교육원(이사장 노성대)이 주최하고 한국청소년영상제 조직위원회(위원장 이병화)가 주관하는 이번 영상제에는 '1318의 창, 필(Feel, 必)통(通) 이야기'를 주제로 열린다.

국내 청소년영상제로는 가장 오랜 전통을 자랑하는 KYFF는 올해도 전국에서 230여점이 출품됐으며, 중국·일본 청소년들이 제작한 영화도

초청상영된다.

21일 오후6시 유스퀘어광장 특별무대에서 열리는 개막식에서는 지난 해 대상 수상작인 'Music Brings me here: Best of you' 이 상영되며 22일 오전 11시부터 동구문화센터에서는 본선 진출작 20여편이 관객들을 만난다.

KYFF는 각종 청소년영상제 중 유일하게 전국 중·고등학생들로 이뤄진 청소년심사단(반영 비율 20%)을 운영하고 있다. 올해 역시 공모를 통해 선발된 35명이 심사에 참여한다. 청소년심사단은 또 광주직접시정

소년수련원에서 2박3일 동안 합숙하며 영화 교류 캠프와 심야 영화 축제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마지막날인 23일 오후 2시부터는 CGV광주터미널점 4관에서 본선진출작 상영에 이어 폐막식 축하공연, 대상(여성가족부장관상·상금 150만원) 수상작 양코르 상영 등이 진행된다.

행사 기간 중에는 캐리커처 그려주기, 코디체험전, 영상기기 전시, 커피 바리스타 체험 등 다채로운 부대행사도 열린다. 문의 062-233-7224.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광주극장 '버스를 타라' 오늘 무료상영 감독과의 대화도

한진중공업 사태로 촉발된 '희망버스'에 관한 다큐 '버스를 타라' 특별 무료 상영회가 19일 오후 7시50분 광주극장에서 열린다.

'버스를 타라'는 한진중공업 정리하고 문제와 300일 넘게 고공농

성중이었던 김진숙씨를 만나러 왔던 희망버스 승객들의 다섯번의 여정을 사실적으로 담아낸 다큐멘터리다.

'버스를 타라'는 2012 인디다큐페스티벌 올해의 다큐멘터리 수상

하는 등 많은 관심을 모았다.

이날 영화 상영 후 김진숙 감독과의 관객과 대화 시간도 마련되며 영화 상영전인 오후 7시부터는 문화난장 행사가 열린다. 문의 062-224-5858. /김미은기자 mekim@

가을밤 피아노에 물들다

제주·광주 교류 '두오 정기연주회' 22일 금호아트홀

피아노 두오 정기연주회가 오는 22일 오후 3시 유·스퀘어문화관 금호아트홀에서 열린다.

지난 1991년 창립한 광주피아노두오협회(회장 서영화·사진)가 주최하는 이번 음악회는 제주·광주 교류연

주회로 마련됐다.

김수현&강나영씨는 슈베르트의 '인생의 폭풍'을, 조미현&박재희씨는 비제의 '카르멘 모음곡'을 들려준다. 또 서양자&이슬씨가 아렌스키의 '두 대의 피아노를 위한 조곡 1



번 작품 15'을, 현은숙&김향숙씨가 아르투니안과 바바자니안이 함께 만든 '아메리칸 랩소디'를 선사한다.

피날레 무대는 김자영씨와 유리씨가 호흡을 맞춘 베토벤의 '두대의 피아노를 위한 4개의 디베르티멘토'다. 문의 010-3642-1621.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Advertisement for Hansaton (www.kjhr.com) celebrating 30 years of business with a 30% OFF SALE. It features logos for various countries and contact information for multiple branches.

Advertisement for U-square restaurant, highlighting '주류서비스' (alcohol service) and '150여가지의 즉석메뉴' (150+ instant menus). It includes a price list and contact information.

Advertisement for U-square Sauna (유·스퀘어 사우나), featuring '24시간' (24-hour) service and various amenities like '수면실(침대)', '인터넷', and '안마기'.